

‘상상이 현실로’ 신진 문화기획자들 첫 발 내딛는다

문화기획 실무 양성 ‘호랭이스쿨’ 5기

‘한 그릇의 기억식’ 등 16개 프로 선포



실무형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랭이스쿨’ 5기 청년 기획자들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인다.

오월어머니들의 기억 속 따뜻한 밥 한끼는 어떤 맛일까. 오월어머니들이 기억하는 밥상을 소환해 재현하는 참여형 요리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한 그릇의 기억식. 광주의 5월을 담다’라는 타이틀로 실무형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랭이스쿨’ 5기 신진 문화기획자 김수현씨가 오는 8일 동구인문학당 공유부엌에서 선보이는 것.

이처럼 미래세대의 감성과 시선이 담긴 신진 문화기획자들의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광주문화관을 이끌 문화기획자들이 첫 발을 내딛는 셈이다. 광주시가 후원하고 청년문화허브가 운영하는 실무형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랭이스쿨’에 참여한 이들이다. ‘호랭이스쿨’은 기획·운영·평가 등 시작부터 끝까지 경험해볼 수 있는 현장형 인큐베이터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시작, 지속적 성장 플랫폼을 지향해 수료 후에도 포스트 과정과 수료생 간 정기 네트워크 모임, 전문 컨설팅,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5기 청년기획자들은 문화기획자의 꿈을 품고 지난 4월부터 ‘호랭이스쿨’에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관심을 ‘첫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담았다. 신진 문화기획자들이 기획한 프로젝트 총 16개로, 광주 도심과 온라인을 무대로 잇따라 만날 수 있다. 정서적 돌봄이나 개개인의 감정과 취향을 반영한 시도 등 서로 다른 시선으로 문제에 다가가 풀어내는 방식이 신선하다.

먼저 일상의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지는 기획이 눈에 띈다. 5·18 시민군의 필체를 서체로 복원해 무료배포하는 온라인 캠페인 ‘당신의 문장이 응원될 때’ (9월까지·정성영)는 시민들이 남긴 문장을 모아 오늘의 다짐과 응원을 공유한다. ‘한 그릇의 기억식, 광주의 5월을 담다’ (9월·김수현)는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의 음식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 동구인문학당 공유부엌에서 음식명인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새로운 방식으로 상처의 치유를 꾀한다. 치유 프로젝트 ‘대나무숲의 위 (Up) 로’ (8·15일·김예리)는 라라온실원예치유센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사별자를 위해 그림책·원에 테라피 등

을 진행한다.

사회·정서적 독립 청년을 잇는 ‘연-결’ (8·15일·강주리)은 느슨하지만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만들아가는 시도를 하며, 반려동물 상심의 아픔을 창작으로 치유하는 ‘너의 숨결을 기억해’ (8~9일·김도은)와 움직임과 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문화치유 프로그램 ‘Mind Palette’ (8일·문세현) 등은 일상 속 정서 회복의 기반을 다진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실무형 기획으로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인테리어 기획 세미나 ‘짠 인테리어가 가장 비싼 실패가 되지 않도록’ (8일·양지수), 식품 관련 예비 창업자를 위한 ‘까마귀 가이드’ (16일까지·정찬환), 일 방문자 100명 만들기 ‘블로그를 만드는 나만의 취미 포트폴리오’ (15일까지·이수진) 등을 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시장에 한 작품만 전시하는 감상 및 기록

프로젝트 ‘작품에게 온 초대장’ (8~9일·정영인), 독백극 영상 제작 및 온라인 공개 프로젝트 ‘stoulier-인생 한 편’ (7~16일·박수인),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공연 ‘Kid’s Stage: 아이들의 작은 추억’ (7일·최재영), 재개발 지역 누문동의 풍경을 식물의 상징으로 되살린 ‘뉴문 프로젝트: 몬스테라 아단소니’ (16일까지·한효정) 등도 선보인다.

자세한 프로젝트 내용과 일정은 청년문화허브 블로그 (www.blog.naver.com/culturehub02)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청년기획자들의 프로젝트 진행 모습.

독서 경험 선물 ‘책 사줄게, 책 나눌게’

광주문화재단은 11월 한달 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ESG 캠페인 ‘책 사줄게! 책 나눌게!’를 진행한다.

‘책 사줄게! 책 나눌게!’는 11월 한 달간 임직원뿐 아니라 시민이 후원금 또는 중고도서를 기부함으로써 청소년의 ‘예술적 경험’을 응원하는 참여형 ESG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지역서점에서의 특별한 독서 경험을 선물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캠페인 후원금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책을 직접 고르고, 읽고, 머무는 경험을 통해 지역 서점이 문화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확장하고, 책-서점-사람이 연결되는 문화적 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전망이다.

광주문화재단의 지역서점활성화지원사업 ‘책으로 (路)’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지역서점과 협력해 운영된다.

동명책방 (동구 장동로43번길 16)을 비롯해 예지책방 (동구 제봉로 70 3층), 소년의서 (광주 동구 충장로46번길 8), 책과생활 (동구 제봉로 100-1), 러브앤프리 (남구 천변좌로418번길 17), 서로사랑하세요 (남구 백운로 36-1), 완벽한오빠 (광산구 첨단중앙로67번길 83) 등 서점 총 7곳이 참여한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책 사줄게!’는 캠페인 포스터 QR 또는 광주문화재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금 품을 작성한 후, 후원금 입금 또는 협력 서점에서 직접 결제하면 된다. 두 번째, ‘책 나눌게!’는 같은 경로로 참여링크에 접속한 후, 기부할 중고도서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름·다운·가계로 직접 택배를 보내거나 광주문화재단 또는 캠페인 참여 서점에 기부하면 된다.

후원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후원 금액별 리워드가 제공된다. 지역 감성을 담은 문구류 세트, 독서문화 필수품 등이 준비되며, 10만원 이상 후원자에게는 지역서점이 추천하는 블라인드 북 1권과 추가 리워드가 증정된다. 모든 리워

후원금 입금·중고도서 발송 캠페인

지역서점 7곳서 ...책·리워드 증정도



드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일 (12월 10일)’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청주의 ‘서점 앤’에서 이뤄진 캠페인 ‘어른들이 책 사줄게’에서 영감을 받아 광주문화재단의 ESG 철학과 지역서점활성화지원사업의 취지를 결합해 새롭게 기획됐다.

광주문화재단은 ESG를 단순한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관리 개념을 넘어, 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로 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제로 ‘상생’을 선정, 실천 방안으로 ‘후원문화와 예술 경험’을 제시했다. 이에 이번 캠페인은 지역 서점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형 후원문화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선보인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이달 중 상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ESG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오는 14

일부터 24일까지 ESG문화주간을 운영한다. 14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년 문화예술후원매개체전문가 양성과정-제주전라권’ 심화교육이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24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문화예술의 내일을 고민하는 ESG 포럼’이 진행된다.

ESG 포럼은 방대옥 다음사람재단 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계 방안에 관해 토론하며, 각 E·S·G 분야별 상생사례와 관점에 대해 다룬다. 또한, 나주문화재단과의 문화행경자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초광역권 (광주·전남) 협력과 문화행경자의 역할에 대해 실무자 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이후 교류프로그램을 광주생활권역 (광주·나주·화순·담양·장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암석 결처럼 쌓아올린 ‘시간과 감각의 층’

오수경 개인전 30일까지 아천미술관

정체성·예술적 뿌리 맞닿아 있어 의미

그의 조부는 서양화가 오지호 선생 (1905~1982)이고, 부친은 오승운 화백 (1939~2006)이다. 오지호 선생은 한국적 인상주의를 정착시킨 근현대 서양화의 대가이고 생전 조선대 교수와 국전 심사위원장 등을, 오승운 화백은 한국 서양화단의 거장으로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 등을 두루 역임했다.

오지호 선생은 동양화가인 의재 허백련 선생과 호남 근대화화의 양대산맥으로 통했다. 이런 저명한 미술 집안 출신인 오수경 화가의 이야기다. 오작가가 영암 아천미술관 기획초대로 개인전을 연다. 전시는 지난 1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지오 필그림-감각적 지도 Sensory Map’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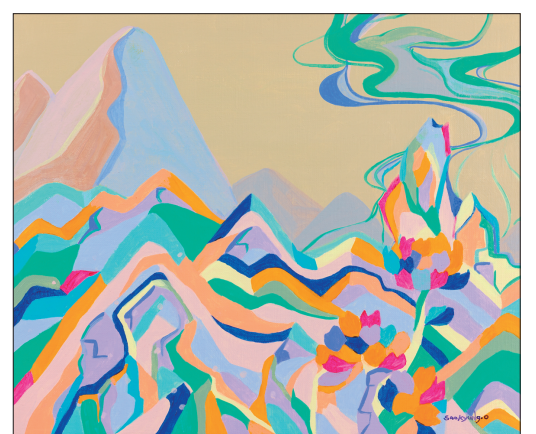
한 예술가의 정신과 그로부터 이어진 또 한 세대의 창조적 사유가 한 공간 안에서 만나는 뜻깊은 자리로 손색이 없는 이번 전시는 오승운 화백의 주요 작품을 소장하며 한국 근·현대 서양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아천미술관에서 오 화백의 자녀인 오작가의 전시를 열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나의 섬, 나의 근원 (我島)’이라는 뜻을 지닌 아천미술관의 이번 전시는 그러한 미술관의 정체성과 작가의 예술적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오작가의 신작 연작 ‘지오 필그림-감각적 지도’는 자연 속 ‘순례자’ (Pilgrim)로서 경험한 풍경과 감각의 층위를 회화로 풀어낸다. 작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지층처럼 색과 형태를 반복적으로 겹쳐 올리며, 화면 위에 ‘감각의 지층’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풍경의 재현을 넘어, 인간과 자연, 시간과 존재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다. 그에게 순례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체와 감각을 통해 세계와 직접 맞닿는 과정이다.

이번 작품들은 중국 둔황의 마고굴, 천산 산맥의



오수경 작 ‘필그림-실악’

바위, 사막의 빛 등 자연의 원형적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작가는 이 경험을 ‘압축된 감각’으로 회화화하며, 인간의 물임과 자연의 시간, 그리고 깨달음의 흔적을 하나의 화면에 담았다. 그의 그림 속 암석의 결과 대지의 흔적은 단순한 표면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 속에서 마주한 깨달음의 흔적이자 시간의 패턴으로 남는다.

특히 그의 화면 속에는 지질학적 시간과 인간의 감각이 맞물리며, 대지의 흔적이 색채와 형태로 변주된다.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자연의 깊은 리듬과 존재의 울림을 감각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또 디지털 기술로는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세계의 감각, 그리고 인간이 세계와 맺는 근원적인 관계를 탐구하며, 그 여정을 ‘감각적 지도’로 기록한다.

작가는 전시에 앞서 “수백만 년의 압력을 견뎌온 암석의 결정체, 나 또한 그 시간과 감각을 회화의 층으로 압축하고 싶었다”면서 “박물관의 정교한 VR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직접 몸을 움직여 순례의 길을 걷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천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의 전통과 현대적 감성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세대를 이어 흐르는 창조의 정신을 함께 조명한다. 관람객들은 작가가 은밀으로 직관한 자연의 압력과 시간의 층위를 작품 속에서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